

“카톡 잡아라” 데이터 안쓰고 그룹채팅-동영상 전송

SKT, 차세대 RCS 첫 서비스

이통3사, 삼성 ‘갤S’ 폰 통해 RCS 서비스 잇따라 선보여

SKT는 국내 통신사 최초 상반기 기업용 서비스 예정

‘카카오톡’처럼 그룹채팅과 사진,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나왔다. 별도의 데이터 차감없이 5메가바이트(MB) 수준의 사진, 영상을 원본으로 전송할 수 있고 읽음 확인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15일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문자 서비스 RCS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와 ‘갤럭시S9’, ‘S9+’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RCS는 데이터 기반의 메신저형 서비스로, 기존 단문 메시지(SMS)와 멀티미디어메시징 서비스(MMS)에 그룹채팅 등의 기능을 더한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모델들이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

별도 가입을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 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이용량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되고, 사진과 영상도 용량을 압축해 발송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RCS 서비스는 5MB 이하의 고화질 사진, 짧은 동영상을 데이터 차감없이 이

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원본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6월까지의 프로모션을 적용해 5MB 이상 100MB 이하도 데이터 차감없이 전송 가능하다.

카카오톡과 같이 그룹채팅이나 읽음확인 등의 기능도 있다. SK텔레콤뿐 아니라 KT 또한 지난달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에 RCS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

다. 최대 100명과 동시에 그룹채팅을 할 수 있고, 최대 100MB의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KT의 채팅 서비스는 ‘챗봇(Chatbot)’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챗봇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고, 상품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향후 채팅서비스 내에서 상품 주문,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올 상반기 내 삼성전자 ‘갤럭시S10’을 통해 RCS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는 이미 2012년 ‘조인’이라는 RCS를 도입한 바 있지만 서비스 차별화에 실패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이 또 다시 RCS 서비스에 나서는 이유는 카카오톡에게 빼앗긴 메신저 플랫폼 패권을 찾고 확장에 나서기 위해서다. 메신저 플랫폼을 확보하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시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사용자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올 상반기에 국내 통신사 최초로 기업용 RCS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용 RCS 서비스는 사진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링크 버튼을 하나의 카드메시지 형태로 제공한다. 고객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세 정보를 보거나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문자 앱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RCS가 국내에서 카카오톡을 대체할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내 메시지 시장은 카카오톡이 주도하고 있어 사용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앱분석 업체 와이즈앤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 메신저의 총 사용시간 중 ‘카카오톡’의 사용시간은 94.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은 “RCS 서비스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이동통신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네이버, 라이브 기술 고도화 박차

브이라이브에 ‘리얼타임모드’ 추가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적 제공 노력

네이버가 동영상 라이브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의 동영상 기술 플랫폼인 ‘프리즘(PRISM)’의 기술적 차별성과 구조적 확장성 부분에서 완성도를 더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동영상 기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최근,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플랫폼인 브이라이브에 자체 개발한 ULL(초저지연) 기술을 탑재한 ‘리얼타임모드’를 적용했다. 사용자가 리얼타임모드를 적용하면, 글로벌 수준인 2초대의 지연속도로 실시간 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네이버는 ULL 기술을 고도화해, 기존 10초대의 지연을 2초대로 구현했다.

또한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재생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수신모드와 송출자와 사용자 간의 실시간성을 우선으로 하는 수신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네이버는 송출, 미디어 서버, 스트리밍 등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단계별 기술 컴포넌트를 통합 개발, 관리하는 글로벌 라이브 기술 플랫폼인 프리즘을 구축해, 라이브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브이라이브의 해외 이용비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리얼타임모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라이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예측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액션을 결정하는 자체 송출 기술인 ABP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 H.264코덱보다 압축 효율이 뛰어난 고화질 영상 코덱인 HEVC코덱을 브이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등의 서비스에 적용해, 기존 대비 3~40% 이상 고화질의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ABP 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고화질의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bitrate(초당 전송 비트수), fps(1초당 동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 수) 등을 최적화된 환경으로 송출하는 기술이다.

또한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를 기반으로 네이버 라이브 클라우드를 구축했다. 현재 네이버 라이브 송출 도구인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해 라이브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페리스코프, 유튜브 등 글로벌 방송 플랫폼으로 송출이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쏘카, 4곳서 500억규모 투자 유치

알토스벤처스 등 4곳 참여 인프라 확대, 서비스 강화

쏘카가 실리콘밸리 기반의 벤처캐피탈 알토스벤처스를 포함한 4곳으로부터 총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쏘카에 따르면 투자에는 알토스벤처스를 주축으로 K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로부터 600억 투자를 유치한지 9개월 만이다. 쏘카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및 기술 개발 역량을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삼성전자, 북미서 벽걸이 무풍에어컨 선풍

美 ‘AHR 엑스포’ 참가 음성 제어 솔루션 등 공개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 혁신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14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AHR 엑스포’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AHR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세계 2000여개 기업이 공조 기술과 제품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무풍에어컨 풀라인업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에는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을 새로 선보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외기전담 공조시스템(DOAS)’과 전열교환기(ERV)도 함께 선보였다. DOAS는 외부공기 온도와 습도를 실내 공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삼성전자는 미국 AHR엑스포에 참가해 최신 공조기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주고, ERV는 외부 오염을 막으면서 실내 공기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장치다. 냉난방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그 밖에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 연결

성을 강화한 시스템 에어컨과,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이용해 에어컨을 음성인식으로 제어하는 등 솔루션도 선보였다.

/김재웅 기자 juk@

자이글, 2019년형 네모 자이글 선풍

‘자이글 파티 스페셜’ 출시 발열부 180도 이동 가능

자이글주식회사는 콤팩트한 사각 디자인으로 일명 ‘네모 자이글’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자이글 파티’의 2019년형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자이글 파티 스페셜’은 적외선을 쏘는 위쪽 발열부(헤드)를 180도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좌우로 헤드를 기울 수 있어 조리 음식물이 익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먹을 때도 발열부에 손이 닿을 일이 없이 편안한 식사가 가능하다. 헤드 이동시 전원은 자동으로 온·오프되도록 설계해 안정성도 강화했다.

이 제품은 원형 적외선 램프와 조리팬에서 벗어나 콤팩트한 사이즈의 직사각형 외관으로 작은 부엌이나 작은 식탁에도 잘 어울린다. 실버와 블랙 컬러 조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내열 코팅을 함



2019년형 자이글 파티 스페셜.

으로써 내구성도 좋을 뿐 아니라 윤기나는 컬러감으로 주방과 식탁에 놓았을 때 시각적 효과도 뛰어나다. 먼지 청소나 관리도 간편해졌다.

사각 조리팬도 이에 맞춰 기본 구이팬과 2종의 멀티와이드팬(구이용과 볶음용 리용)까지 총 3개의 조리팬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24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벤처스

라이프스타일 용품 전문 제조기업 투자

카카오벤처스가 라이프스타일 용품 전문 제조기업 소셜빈에 투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소셜빈은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KB인베스트먼트, 플래티넘기술투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등이 공동 투자했으며,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소셜빈은 유아, 반려동물, 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소셜빈은 유아 식기 브랜드 ‘퍼기’를 운영 중이며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리틀클라우드’, 생활용품 브랜드 ‘노멀라이프’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빈의 대표 제품인 ‘고래식판’은 안전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유아용 친환경 식기다.

/구서윤 기자